

여야 '주민투표' 막판 힘겨루기

與, 내홍봉합 속 대대적 對野공세 재개 野, 단일대오 속 투표 불참운동 총력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여야는 당력을 집중, 막판 승기 잡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주민투표-시장직 연계' 발표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총력전 체제'를 재정비한 반면 민주당은 단일대오 유지 속에 투표 불참운동 확산 노력을 위한 '오세훈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한나라당=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칭, "남은 이틀 동안 투표참여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 시장의 결정을 놓고 당내 찬반양론이 표출되면서 당력 결집의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하루 만에 이를 극복해 낸 분위기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 등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인사들은 적전분열 논란을 우려하는 마당에 당내 불협화음은 선거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 지역 48개 당협이 결사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화 홍보는 물론 조직을 총동원, 투표 당일 투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데 대한 불만이 잠복해 있어, 주민투표 이후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불모로 주민투표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린이들이 이념대립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돈 내고 밥 먹는 아이들이라는 마당에 당내 불협화음은 선거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은 대권놀음에 초조한 나머지 퉁키호테식 쇼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

책위원회는 신촌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서 유세차를 동원해 투표 불참 홍보전에 나섰다.

투표 거부 운동이 반민주적이라는 여론의 논리에 대해서는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라는 반박 논리 전과에도 힘을 쏟았다. 대책위는 또 이날 오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 시장이 전날 회견에서 33.3%라는 투표율을 거론한 것을 들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이날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조장간담회를 개최해 투표 독려를 지시했다"며 "이는 현역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투표활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생생 자치

광주시 간부회의 들여다보니

강운태 "오세훈, 시장직 거는 건 국론분열 행위"

"명절 선물한 직원 인사 불이익-체불임금 뿌리 뽑아야"

강운태 광주시장은 22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동의 목표인데도 복지정책 중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에 나서면서 시장직까지 거는 것은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노약자와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공무원의 투표활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내년 총

선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메가트렌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칫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광역단체장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재정자립도 42%에 복지비만 31%에 달하는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 여건에서도 오는 2013년까지 중학생 무상교육을 위해 43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가 82%에 달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재정난을 겪더라도 복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강 시장은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GDP의 8.3%인데 OECD 국가 평균은 21.2%의 3분의 1 수

준이다"며 "우리나라 예산 총액 중 복지비는 28%에 불과하며 이 역시 OECD 평균은 45%보다 낮아 우리나라는 추후 계속해서 복지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이날 간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와 임금체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련 실과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체불임금은 사회적 악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며 "공사대금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놓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등을 개설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명절 시장 관사에 선물을 보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0·26 재보선

전남·북 5곳 민주 준비작업 돌입

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는 10·26 재·보궐선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 의원)은 22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24차 운영위를 열고 10·26 재·보궐선거 관련 심의기구를 구성했다. 도당은 오는 10월26일 치러질 전남도의원(장성군 2선거구)과 화순군의원(화순다 선거구) 등 재·보선 관련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전남 2곳의 재·보궐 선거구에는 각각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1명씩이 등록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등 2곳의 자치단체장 선거구와 전북도의원 4선거구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10·26 재·보선 작업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 최근 사고 당부 및 사고위원회 정비절차에 따라 지역 대의원 대회를 구성한 무안·신안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윤석 의원)의 결정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 광주시당-광주시 정책간담회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는 22일 오전 금수장 호텔에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전남지역발전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 정치신인 '새정치모임' 출범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대거 포진

민주당의 40대 정치 신인들이 주축이 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모임'(이하 새정치모임)에 내년 총선 광주·전남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포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켜 국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새정치 모임에서 광주·전남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재두(담양·곡주·전남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비롯 박희정(전 청와대 행정관), 황희(민주당 부대변인) 등 다수의 광주·전남 지역 출신들도 새정치 모임에 참여,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새정치 모임 광주·전남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2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전남지역 현안과 지역 민심의 요구를 대변하는 한편 민주당의 제도 개혁과 과감한 인적쇄신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박주선 "개성공단 의료시설 예산 안써"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22일 "개성공단에서 응급상황으로 납북으로 이송된 환자가 2007년 이후 수백 명에 달하고 있지만, 통일부가 개성공단 의료시설 신축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남북경색을 이유로 수년째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 "애초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1만7750ha를 보상하는데 2조 69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2011년 7월말 현재 보상면적이 1만476ha로 줄고 금액은 3조211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토지 보상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과도한 예산 전용으로 국회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4대강 사업의 토지 보상의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MB, 균형재정 달성은 공수표"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입 확충 없는 균형재정 달성은 공수표"라고 비판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5%, 국제 탄소저는 1.15(국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를 전제하고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조차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90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집중적으로 깎아준 것은 미래 세대에겐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진짜 포퓰리즘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MB 정부의 감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4대강 예산 감사원 감사 촉구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22일 "4대강 토지보상 면적이 41% 줄어든 반면 보상액은 55%나 늘어났다"며 토지보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 채권의 유형 | 대상 채권 |
|-----------|--------------------------------|
| 상거래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
| 매매 채권 |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
| 금전소비대차 채권 |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갚돈 등 |
| 임차권 채권 | 주세,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
| 임금 채권 | 급여(정규, 일용) |
| 기사 |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
| 구상권 |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
| 기타 |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채준) 010-5311-0086

대한민국 최초! 음성채팅의 신기원
무료 음성커뮤니티

어디서나 24시간 100% 직접 통화됩니다. 직접확인하세요!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900 정보이용료나 고가의 월정기대비를 4000원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번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반 전화요금 1000원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7958 남·여 공통사용

매니안남방 10번 | 여행정보방 12번 | 음성소셜방 07번
보급보급방 01번 | 연인만들기방 03번 | 1:1 대화방 15번

14년 전통 하트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 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0일 24시간 바쁘게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질기를 거머쥔 불교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적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슬보다 더욱 핀 안해야 할 사신이 너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문의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